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1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강연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②



③



④



⑤



2. (물음) 이 강연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서의 의의
- ② 양서의 선별 방법
- ③ 올바른 독서 방법
- ④ 폭넓은 독서의 필요성
- ⑤ 양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3. (물음) 영호의 말에 이어질 대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너도 예습, 복습을 잘 하잖아.
- ② 너도 한번 해 봐. 내가 도와주지.
- ③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이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
- ④ 그 대신에 너는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잖아. 난 그게 부럽더라.
- ⑤ 아니야. 나는 이해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업 내용을 잘 따라갈 수가 없어.

4. (물음) 이 강연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1점]

- ① 꽃담이란 무엇인가?
- ② 꽃담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 ③ 꽃담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였는가?
- ④ 꽃담의 문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⑤ 꽃담의 재료로는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는가?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② 대담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 ③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대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④ 발언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하여 대담자의 의견을 유도하고 있다.

6. 두 대담자의 공통된 생각을 묶은 것은?

<보 기>

- ㄱ. 현재의 투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 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 ㄷ. 전자 투표제 시행을 위해서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
- ㄹ. 선거 문화의 문제점은 전자 투표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다음 자료를 통해 연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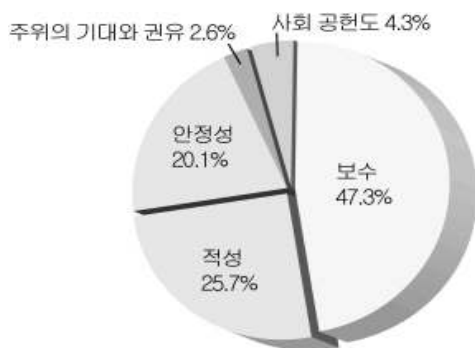


- ① 발상의 전환, 미래를 여는 지름길입니다.
 ② 문화의 다양성,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③ 세계 속의 전통 문화, 우리 것이 최고입니다.
 ④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 건강한 사회의 초석입니다.
 ⑤ 더불어 사는 삶, 양보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8. <보기>의 자료를 토대로 ‘바람직한 진로 교육과 직업 선택’에 대한 글쓰기 계획을 구상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료1) 직업 선택 시 고려 사항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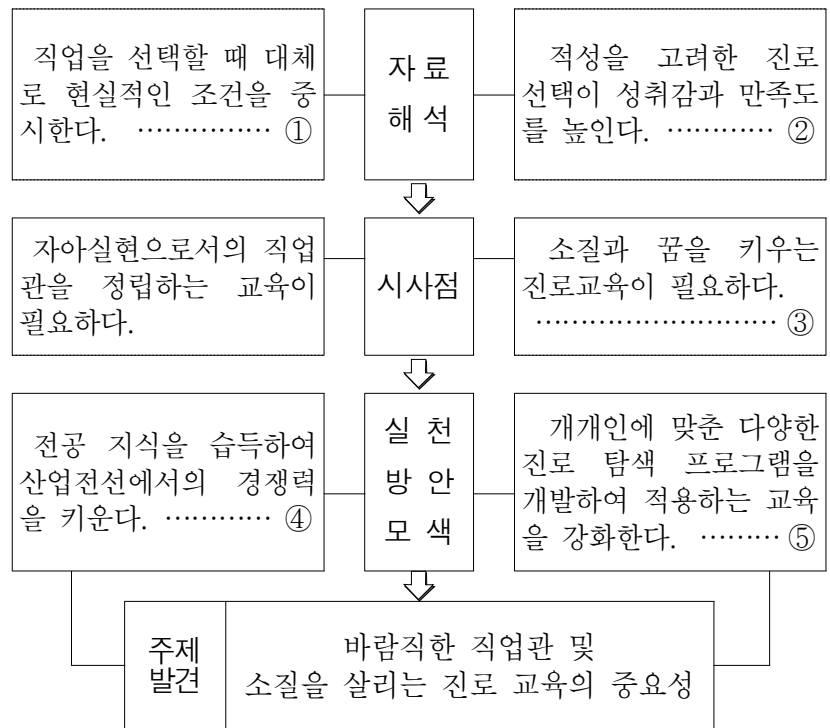
(자료2) 국내 최초 코끼리 여자 사육사 탄생!

○○○씨는 남자들과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동물원에 입사해 코끼리와 커플이 됐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동물을 잘 다루어서 동물원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던 ○○○씨는 지난 해 대공원에서 코끼리 사육 실습을 하면서 동물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우게 되었다.

“덩치는 크지만 표정은 마냥 어린아이 같아요. 이제는 코끼리가 귀엽기까지 합니다. 처음엔 엄청난 양의 배설물에서 풍기는 냄새가 참기 힘들 정도로 역겨웠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기쁨에 그 냄새가 ‘악취’로 느껴지지 않아요.”

(△△신문)

(자료1)



9. <보기>와 같이 ‘독서 심리 치료’와 관련한 개요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제문 : ○

I. 처음

독서 심리 치료에 대한 관심의 증대

II. 중간

- 독서 심리 치료의 방법
 - 독서 심리 치료의 유래
 - 독서 심리 치료의 개념
- 독서 심리 치료의 이론적 기초
 - 정신분석 이론
 - 사회학습 이론
- 독서 심리 치료의 과정
 - 가. ○
 - 나. 참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참여자의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
- 독서 심리 치료의 효과
 - 가. 단기적 효과
 - 나. 장기적 효과

III. 끝

독서 심리 치료의 활성화

- ① ○은 ‘독서 심리 치료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성화하자.’로 한다.
 ② I에서 관련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③ ‘II-1’은 ‘독서 심리 치료의 의의’로 바꾼다.
 ④ ‘II-2’의 하위 항목으로 ‘독서 심리 치료의 성공 사례’를 추가한다.
 ⑤ ○은 ‘참여자의 심리 상태를 진단’으로 한다.

10. <보기>의 조건에 맞는 글쓰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 주제 : 부모님의 자식 사랑
- ▷ 소재 : 실생활과 관련된 친근한 소재를 활용할 것
- ▷ 표현 : 구체적 사건이 나타나도록 할 것
·비유적 표현 기법을 활용할 것

- ① 아버지의 신발 뒤축이 거의 닳아 신을 수 없는 지경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비싼 운동화를 두말 않고 사주신 오늘…….
- ② 울창한 나무의 그늘은 아버지의 사랑! 나의 걱정과 근심을 삭여 준다. 굵은 나무의 줄기는 아버지의 정! 나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준다.
- ③ 심한 감기 몸살로 앓던 나의 이마 위에 썸 없이 오르내리던 시원한 물수건. 앓아누운 나보다 더 아파하시던 어머니! 어머니는 내 영혼의 등불입니다.
- ④ 엄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엄마의 주름살을 말끔히 지워 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 ⑤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길러 주셨구나.’ 생각하면 참 고마운데 왜 표현하기가 이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말로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11. ‘이-러닝(e-learning)’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한다. 제작 계획서에서 <보기>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 ▷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한다.
- ▷ ‘이-러닝’의 효과를 긍정적 측면에서 부각시킨다.
- ▷ 전문가들의 대답과 방청객 및 시청자의 질문 형식으로 구성한다.
- ▷ ‘이-러닝’에 관심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 ▷ ‘이-러닝’의 필요성, 방법 및 효과, 외국의 성공 사례, 학생과 일반인의 의식 조사 등을 내용으로 한다.

<영상물 제작 계획서>		
제 목	특집 방송 - ‘이-러닝’은 미래 교육의 대안	…①
제작 의도	중·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이 ‘이-러닝’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②
구성 방식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방청객과 시청자가 논의 내용에 대해 질의한다.	…③
사회자의 역할	‘이-러닝’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여 부각시킨다.	…④
전달 방식	▷ 설문 조사 결과를 시각 자료로 제시한다. ▷ 다양한 성공 사례를 영상으로 편집하여 현장감 있게 보여 준다.	…⑤

12. <보기>를 고쳐 쓰고자 할 때,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오페라의 문’ 어떻게 두드릴까?

오페라는 미술, 문학, 음악, 무용 등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다. 그 줄거리나 가수의 의상, 무대 효과 등은 별도의 준비 없이도 공연 현장에서 곧바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지만 음악적인 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습’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연장에 가기 전에 감상할 오페라의 전곡(全曲) 음반을 구해 대본과 함께 감상해 보는 것이다. 오페라 해설서나 팜플렛을 구입해서 읽어 보는 것도 공연 관람의 경험에 많지 않은 감상자들에게는 매우 유리하다. 그러므로 공연장에서 오페라를 감상할 때는 막이 끝날 때마다 갈채를 보낸다. 연주가 만족스럽게 느껴졌을 때도 박수를 칠 수 있다. 매우 감동한 경우에는 ‘앙코르!’, ‘브라보!’ 등의 환호를 보내도 무모하다. 연주는 갈채에도 불구하고 연주를 계속 끌어 나갈 경우에는 조용히 연주를 경청해야 한다.

검토 내용		
글쓰기의 의도에 맞게 내용을 생성하고 있는가?	①	둘째 문단에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 있으므로 삭제한다.
문단의 연결은 자연스러운가?	②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연결이 어색하므로 자연스럽게 고친다.
문장이 어법에 맞는가?	③	셋째 문단에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 있으므로 바르게 고친다.
단어의 사용이 적절한가?	④	‘유리하다’, ‘무모하다’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유익하다’, ‘무방하다’로 바꾼다.
단어는 맞춤법 규정에 맞는가?	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팜플렛’을 ‘팸플릿’으로 고친다.

13.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1점]

- ① 누가 너를 나무랬니?
- ② 그 애는 참 예의가 발라.
- ③ 나한테 너무 화내지 말아요.
- ④ 내가 가고 나면 난 어떻게?
- ⑤ 내가 5시까지 너희 집으로 갈께.

14. <보기>의 ㉠,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한글 맞춤법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

㉠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

㉡

- | | ㉠ | | ㉡ |
|---|-----|---|-----|
| ① | 속히 | - | 높이 |
| ② | 곰곰이 | - | 반듯이 |
| ③ | 더욱이 | - | 뚜렷이 |
| ④ | 도저히 | - | 깨끗이 |
| ⑤ | 꾸준히 | - | 일찍이 |

[15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힌 뿔부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숭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옴짓 아니 기던 : 움직이지 않던

** 햇옷 : 숨을 두어서 지은 옷

(나)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낮은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어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 고 은, 「속(續) 눈길」 —

(다)

초라한 지붕 씌어가는 추녀 위엔 박 한 통이 쇠었다.
밤서리 차게 내려앉는 밤 싱싱한 녀쿨이 사그러붙던 ㉣뉘. 지
붕 밑 양주(兩主)*는 밤새워 싸웠다.
박이 딱딱히 굳고 나뭇잎새 우수수 떨어지던 날, 양주는 새
바가지 꺾어 들고 초라한 지붕, 씌어가는 추녀가 덮인 옴막을
작별하였다.

— 오장환, 「모촌(暮村)」 —

* 양주(兩主) : 바깥 주인과 안 주인, 즉 부부를 뜻함.

15.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그리움을 주된 정서로 하고 있다.
- ②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현실적 삶의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 ④ 엄숙한 어조를 통해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16. (다)를 <보기>의 조건에 따라 각색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 소설로 바꾸어 쓸 것
- 원시(原詩)의 창작 의도, 시적 상황을 유지할 것

- ① 현정 : 시간적 순서에 따른 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사건을 서술해야겠어.
- ② 수연 : 양주가 밤새워 싸운 이유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사실감을 살려야겠어.
- ③ 철수 : 시적 화자가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묘사하고 있는 점을 살려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해야겠어.
- ④ 정호 : 초라한 지붕, 썩어가는 추녀, 움막 등의 배경 묘사를 통해 당시의 쇠락한 농촌 현실을 구체적으로 그려야겠어.
- ⑤ 영미 : 양주가 ‘새 바가지 꺾어 들고’ 움막을 나서는 대목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희망에 부푼 모습으로 표현해야겠어.

17.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담긴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젠 추위 정도는 견딜 수 있어.
- ② 나쁜한 봄보다는 역시 겨울이 좋아.
- ③ 서늘한 기운을 통해 봄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싶어.
- ④ 서러운 현재보다는 인정 넘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 ⑤ 봄이 왔으니 꽃구경을 가려면 옷차림을 가볍게 해야겠어.

18. ㉡에 나타난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纖細)하고도 /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 ② 마음의 기(旗)는 /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 뉘우침 없는 일몰(日沒)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 가는 / 그 일이란다
- ③ 이른 봄 수풀이 초록빛 들어 풀 내음새 그윽하고
가는 뗏잎에 초승달 매달려 애뒤틀린 밝은 어둠을
너 몹시 안타까워 포실거리며 훗훗 목메었느니
- ④ 겨울 논길 지나며 / 맑은 피로 가만히 숨 멈추고 얼어있는
시린 보릿잎에 얼굴 대보면 / 따뜻한 피만이 얼 수 있고
따뜻한 가슴만이 진정 녹을 수 있음을 / 이 겨울에 믿습시다
- ⑤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 살아오는 삶의 아픔 /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19.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부정적 상황을 상징한다.
- ② ㉢, ㉣은 모두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 ③ ㉢은 시적 화자가 시련에 빠진 상태, ㉣은 추운 겨울의 물리적 시간을 의미한다.
- ④ ㉢은 시적 화자를 방황하게 만드는 존재이고, ㉣은 인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 ⑤ ㉢은 시적 화자가 도달한 평화와 안정의 상태, ㉣은 인물이 처한 부정적 현실 상황을 암시한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나라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있는 교량은 2003년 말을 기준으로 17,622개이다. 교량의 총 길이는 1,600km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교량 길이는 91.6m이다.

교량의 유지 관리는 안정성, 내구성 및 사용성 확보를 위해 하는 청소, 점검, 안전 진단, 보수, 보강, 성능 개선, 개축 등 교량 사용 기간에 행해지는 교량에 관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량을 제대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소와 같은 단순 업무에서부터, 교량의 설계와 시공 과정은 물론 재료와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량 유지 관리는 통상적으로 정비, 보수, 보강, 개축 등으로 대별해 왔으며, 그 비용은 교량의 특성이나 사용 기간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교량의 적정 유지 관리 비용은 교량 형식, 주변 환경, 교통량, 사용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지만 1981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들은 1980년 당시 교량의 연간 유지 비용을 초기 교량 건설 비용의 0.5~2.5% 정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고속도로 교량에 대한 유지비는 1996년부터 급격하게 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90년대 초의 수선 유지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되었다. 이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 시설물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유지 관리보다 건설에 치중한 결과이다.

우리 나라의 2003년 교량 수선 유지비는 공용 기간, 교량 형식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폭 11.2m의 2차로 교량을 기준으로 할 때 1km당 약 1,6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1994년 미연방도로국은 교량의 상태 등급에 따른 교량의 평균 보수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교량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보수 비용이 매우 적고, 상태가 나빠짐에 따라 그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량의 수명 연장 비용은 유지 관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수준이 높을수록 교체 비용이 줄어 전체 관리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교량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유지 관리 수준을 높여 교량의 사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

「 그런데 고속도로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국내 교량 유지 관리 (나) 리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유지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유지 관리 대상 구조물이 크게 늘어났고, 구조물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금도 유지 관리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구조물의 노후화가 진행될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사회적인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20.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상되는 반론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 ② 가설을 설정한 후 그것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상반된 입장을 대비시켜 주장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⑤ 구체적 근거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1. 위 글을 바탕으로 기사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교량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증액 시급
- 수명 연장을 위한 노력 서둘러야
- ② 노후된 교량, 특별한 대책 필요
- 건설보다 유지 관리에 치중해야
- ③ 교량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 투자한 만큼 안정성 보장돼야
- ④ 교량의 안정성과 편의성 확보 절실
- 건설 및 유지 비용 확보해야
- ⑤ 비상! 구멍 뚫린 교량 안전
- 원인부터 철저히 규명해야

22. (가)에 착안하여 이야기 자료를 만들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끈기와 인내가 성공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타고난 재능만을 믿거나 요행만을 바란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 ②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뒤에는 치료도 어렵고, 경제적 부담도 커집니다.
- ③ 수탉이 새벽에 우는 까닭은 슬피 울어야 할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밝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미래지향적 자세를 견지합시다.
- ④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면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축할 돈이 없다고 하지만 쓸 돈을 아껴 저축을 해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푼돈이 쌓여 큰돈이 되

는 것입니다.

- ⑤ 과거가 현재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을 준다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나 버린 시간에 대해 막연하게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23. (나)의 실태를 비판할 때, 가장 적절한 속담은? [1점]

- ① 우선 먹기에는 곳감이 달다.
- ②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 ③ 신선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른다.
- ④ 남의 집 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 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 한다.

[24~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옛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 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뛰여 잇고, 綠楊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 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롭다. ①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物我一體(물아 일체)어니, 興(흥)이익 다룰소냐. 柴扉(시비)에 거러 보고, 亭子(정자)에 안자 보니, 逍遙吟詠(소요 음영)하야, 山日(산일)이 寂寂(적적)하되, 閒中眞味(한중 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山水(산수) 구경 가자스라. 踏青(답청)으란 오늘 하고, 浴沂(욕기)란 來日(내일)하세. 아춤에 採山(채산)하코, 나조히 釣水(조수)하세. 罇 괴여 닉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밧타 노코, ②꽃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樽中(준중)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小童(소동) 아히드려 酒家(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微吟緩步(미음 완보)하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明沙(명사)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청류)를 굽어보니, 써오느니 桃花(도화)로다. ③武陵(무릉)이 갓갑도다, 저 미히 낀 거인고.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 峰頭(봉두)에 급피 올라 구름 소귀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러 잇네. 煙霞日輝(연하 일휘)*는 錦繡(금수)를 재꿨는 듯. 옛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餘(유여)하샤.

④功名(공명)도 날 띄우고**, 富貴(부귀)도 날 띄우니, 淸風明月(청풍 명월) 外(외)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 簞瓢陋巷(단표 누향)에 ⑤호튼 혜음 아니 하네. 아모타, ⑥百年行樂(백년 행락)이 이만흔들 었지하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煙霞日輝(연하 일휘) : 아름다운 자연

** 띄우고 : 꺼리고

(나)

3

쭙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누렁던 잔디가 파아란 속잎을 날리고,

들관마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과 산 등성이에까지,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물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를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른 생명의 춤, 새말간 봄의 춤이 흘러 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러지게 불러대고, 또한 너의 깊고 아늑한 품 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어 놓는다.

4

어느덧 갯가에 서 있는 수양버들이 그의 그늘을 시내 속에 깊게 드리우고, 나비들과 꿀벌들이 들과 산 위를 넘나들고, 뜰 안에 장미들이 그 무르익은 향기를 숨같이 부드러운 ㉡바람에 풍겨 보낼 때면, 너, 보리는 고요히 머리를 숙이기 시작한다.

온 겨울의 어둠과 추위를 다 이겨내고, 봄의 아지랑이와, 따뜻한 햇볕과 무르익은 장미의 그윽한 향기를 온몸에 지니면서, 너, 보리는 이제 모든 고초(苦楚)와 비명(悲鳴)을 다 마친 듯이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성자(聖者)인 양 기도를 드린다.

5

이마 위에는 ㉢땀방울을 흘리면서, 농부는 기쁜 얼굴로 너를 한 아름 덤석 안아서, 낮으로 스르르스르르 너를 거둔다.

너, 보리는 그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 많은 농부들과 함께 자라나고, 또한 농부들은 너를 심고, 너를 키우고, 너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6

보리, 너는 항상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 많은 농부들과 함께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한홍구, 「보리」 —

(다) 新菽濁酒如湏白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大碗麥飯高一尺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飯罷取糲登場立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雙肩漆澤翻日赤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呼邪作聲舉趾齊 웅헤야 소리 내며 밭맞추어 두드리니
須與麥穗都狼藉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雜歌互答聲轉高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但見屋角紛飛麥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觀其氣色樂莫樂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了不以心爲形役 마음이 몸의 노에 되지 않았네.
樂園樂郊不遠有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何苦去作風塵客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

2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 계절적 배경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 ② (가) : 삶에 대한 만족감과 연군의 정이 잘 표현되고 있다.
- ③ (나) :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다) : 일하는 농부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
- ⑤ (다) : 시적 화자는 대상을 바라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 시적 화자 자신의 감정을 ‘새’에 이입(移入)하여 표현한 것이다.
- ② ㉡ : 시적 화자의 풍류적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③ ㉢ : 시적 화자가 진정한 무릉도원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 : 주체와 객체를 전도(顛倒)시킨 표현으로, 화자 자신이 부귀와 공명을 꺼린다는 뜻이다.
- ⑤ ㉤ :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생활 철학을 드러내고 있다.

26.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가), (나)와 유사한 것은? [1점]

- ① 關關東동 八팔百백리니에 方方面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 ② 昭쇼陽양江강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孤고臣신去거國국에 白빅髮발도 하도 할샤.
- ③ 東동州쥬 밤 계오 새와 北북寬관亭亭의 올라흐니, 三삼角각山산 第데一일峰봉이 흐마면 뵈리로다.
- ④ 淮회陽양 네 일흠이 마초아 ㄱ틀시고. 汲급長당孺유 風풍彩치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 ⑤ 어와, 造造化화翁옹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쥬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27. ㉣와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8. (나)의 밑줄 친 단어 중, 원관념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물결 ② 춤 ③ 얼굴 ④ 노래 ⑤ 성자

29. (나), (다)의 보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보리는 온갖 어려움을 견뎌낸 성숙의 표상이다.
- ② (다)의 보리는 농부들에게 있어 풍류의 대상이다.
- ③ (다)의 보리는 시적 화자에게 교훈을 주는 경외의 대상이다.
- ④ (나), (다)의 보리는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다.
- ⑤ (나), (다)의 보리는 모두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한다.

30. (다)의 밑줄 친 부분 중, 주체가 다른 하나는?

- ① 밥 먹자 도리께 잡고
- ② 응혜야 소리 내며
- ③ 주고받는 노랫가락
- ④ 그 기색 살펴보니
- ⑤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언의 분화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하나는 지역이 다름으로써 방언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요인들, 가령 사회 계층, 성별, 세대 등의 차이에 의해 방언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지역이 다름으로 인해 형성된 방언을 지역 방언이라 한다. 두 지역 사이에 큰 산맥이나 강, 또는 큰 숲이나 늪 등의 지리적인 장애가 있을 때 지역 방언이 발생하며, 이러한 뚜렷한 장애물이 없더라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양쪽 지역 주민들 사이의 왕래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두 지역의 언어는 점차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가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되는 일이다. 행정 구역이 다르다든가 시장권(市場圈)이나, 학군(學群) 등이 다르다는 것도, 서로 ㉠소원(疏遠)하게 함으로써 방언의 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든 이처럼 지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서로 분화를 일으킨 방언 각각을 지역 방언이라 한다. 우리 나라에서 흔히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등으로 도명(道名)을 붙여 부르는 방언들이 이 지역 방언의 전형적인 예이지만 ‘중부 방언, 영동 방언, 흑산도 방언, 강릉 방언’과 같은 이름의 방언도 역시 훌륭한 지역 방언의 예들이다. 전통적으로 방언이라 하면 이 지역 방언을 일컬을 만큼 지역 방언은 방언 중 대표적인 존재라 할 만하다.

방언은 지역이 달라짐에 따라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몇 개의 방언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한 지역의 언어가 다시 분화를 일으키는 것은 대개 사회 계층의 다름, 세대·연령의 차이, 또는 성별의 차이 등의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처럼 지리적인 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방언을 사회 방언이라 한다. 사회 방언은 때로 계급 방언이라고 부르는 수도 있는데 이는 사회 방언이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 계층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일반적인 데서 연유한다.

사회 방언은 지역 방언과 함께 2대 방언의 하나를 이룬다. 그러나 사회 방언은 지역 방언만큼 일찍부터 방언 학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어느 사회에나 사회 방언이 없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사회 방언 간의 차이는 지역 방언들 사이의 그것만큼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가령 20대와 60대 사이에는 분명히 방언차—사회 방언으로서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전라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 사이의 그것만큼 현저하지는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남자와 여자 사이의 방언차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 계층 간의 방언차는 사회에 따라서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를 보여 일찍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오기는 하였다. 인도에서의 카스트에 의해 분화된 방언, 미국에서의 흑인 영어의 특이성, 우리 나라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양반 계층과 일반 계층 사이의 방언차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러한 사회 계층 간의 방언 분화는 최근 사회 언어학의 대두에 따라 점차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31.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1점]

- ① 방언의 분화 원인은 무엇인가?
- ② 사회 방언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 ③ 방언의 언어학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 ④ 우리 나라의 지역 방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⑤ 지역 방언을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32. <보기>를 발생 원인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ㄱ. 서울 봉사 같을진대 “문수(問數)하오.” 외런마는 시골 봉사로 “문복(問卜)하오.”하고 외고 가니,
- ㄴ. 10대 때는 친구에게 “애, 나 좀 봐.”라는 말을 썼다가, 40대 때에는 “자네, 나 좀 보세.”라는 말을 쓴다.
- ㄷ. 심마니는 ‘산삼’을 ‘심’이나 ‘심메’, ‘호랑이’를 ‘산개’라 한다.
- ㄹ. 객(客) 왈(曰), “그대를 상등(上等) 양반(兩班)의 밥 먹기를 가르치리라. 종이 진지를 고(告)하거든 ‘올리라’ 말고 ‘들이라’ 하고, 숙랭(熟冷)을 먹으려 하거든 ‘가져오라’ 말고 ‘진지하라’ 하느니라.”

- | | | | |
|---|------|---|---------|
| ① | ㄱ, ㄴ | — | ㄷ, ㄹ |
| ② | ㄱ, ㄷ | — | ㄴ, ㄹ |
| ③ | ㄱ, ㄹ | — | ㄴ, ㄷ |
| ④ | ㄱ | — | ㄴ, ㄷ, ㄹ |
| ⑤ | ㄷ | — | ㄱ, ㄴ, ㄹ |

33. ㉠의 문맥 의미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어려워짐
- ②소홀히 하며 거부함
- ③간절히 바라고 소망함
- ④어떤 관계나 교류가 활발해짐
- ⑤소식이나 왕래가 끊겨 멀어짐

34. 위 글로 보아 <보기>의 ‘비판’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전통적인 방언학은 역사 문법의 한 분야로, 분화된 언어의 옛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으리라 생각되는 시골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연구 방법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사회 언어학이 대두되었다.

- ① 방언 분화의 다양한 요인을 폭넓게 고찰하지 못했다.
- ② 현지에서 모은 언어 자료를 분석하는 기술이 미흡했다.
- ③ 방언의 분화 과정을 밝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 ④ 방언 연구를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⑤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고 순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

[35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양 전통 건축은 불투명한 공간 개념을 갖는 반면 한국 전통 건축은 투명한 공간 개념을 갖는다는 인식이 두 문명권의 전통 건축관 사이에 존재한다. 공간의 투명성과 불투명성의 개념을 결정짓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서리도 그 중의 하나이다.

서양 전통 건축에서 모서리는 메워지고 봉합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정의되었다. 그래야 기하학적 완결성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서양 전통 건축에서는 모서리가 딱 맞지 않으면 불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곧 두 개의 벽체와 천장이 만나는 모서리가 직각으로 맞아떨어져 물샐틈없이 정밀하게 짜인 경우를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서양 전통 건축의 모서리 개념은 튼튼한 시공(施工)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현대 기계 문명에서 서양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데에는 건축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모서리가 잘 봉합된 서양 전통 건축의 공간은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고 삶에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서양인의 생활 방식에 잘 맞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공간이 주는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서양 전통 건축의 모서리 처리는 공간을 불투명하고 폐쇄적으로 만들면서 한국 전통 건축과 큰 차이점을 갖게 된다. 모서리가 정확하게 봉합된 사각형 공간은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드는 불투명한 공간이 되며, 동시에 사면이 꼭 조여지는 폐쇄적 공간이 된다. 특히 서양 전통 건축에서 주재료로 사용되는 돌은 건물의 불투명성과 폐쇄성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한국 전통 건축의 사각형 공간은 모서리가 조금씩 열려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모서리가 닫히는 경우도 있는데 궁궐의 월랑(月廊)이나 돌담 그리고 한옥의 안채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궁궐은 왕의 경호라는 보안상의 이유로, 한옥의 안채는 살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전통 건축은 모서리를 열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틈을 만들었다. 틈을 만들어 모서리를 열어 놓은 사각형 공간은 영성하고 짜임새가 덜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여유 있는 짜임으로 인해 투명하고 개방적인 공간이 된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공간은 편안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사각형 공간을 특징 짓는 요소가 되었다. 더욱이 나무와 창호지가 주재료라는 점은 투명성을 더욱 배가시켜 주었다.

열린 모서리의 공간은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직접 말하지 않고도 상호 간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간접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 얼굴 표정, 걸음걸이, 발자국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목소리의 상태 등이 그 대표적인 방식들이다. 모서리가 열려 있는 한국 전통 건축의 사각형 공간은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준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열린 모서리는 개방적인 느낌을 준다.
 - ② 열린 모서리는 기하학적 완결성을 보여준다.
 - ③ 닫힌 모서리는 튼튼하게 시공된 느낌을 준다.
 - ④ 서양에서는 닫힌 모서리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 ⑤ 닫힌 모서리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에도 나타난다.

3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상반된 의견을 종합하여 절충하려 하고 있다.
ㄴ. 적절한 예를 들어 가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ㄷ. 대상의 특성을 다른 대상과 대조시켜 드러내고 있다.
ㄹ. 대상을 통시적으로 서술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7. 위 글을 읽고 ‘한국과 서양 전통 건축의 모서리’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한국	서양
①	투명성	불투명성
②	편리함	편안함
③	개방성	폐쇄성
④	여유 있는 짜임	정밀한 짜임
⑤	의사소통 용이	개인 생활 보호 용이

38. ㉠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 ①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중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채만식, 「태평천하」—
 - ② 나는 고개도 돌리려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쉼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 김유정, 「동백꽃」—

③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 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 현진건, 「고향」－

④ 그러나 옥이는 며칠을 가지 않아 모화와 낭이에게 알 수 없는 이상한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음식을 받아 놓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나, 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반드시 한참 동안씩 주문(呪文) 같은 것을 외는 것이었다.

－ 김동리, 「무녀도」－

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 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흥내를 낸다.

－ 이상, 「날개」－

39. 위 글을 읽은 후의 심화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궁궐의 월랑과 한옥 안채의 모서리가 닫힌 이유를 알아본다.
- ② 한국과 서양의 전통 건축이 구별되는 특징적 요소를 더 알아본다.
- ③ 건축물의 모서리와 틈새에 대해 다른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본다.
- ④ 한국과 서양 전통 건축의 특징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실제로 확인해본다.
- ⑤ 모서리 외에 공간의 투명성과 불투명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를 찾아본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하에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백성뿐이다. 백성은 홍수나 화재 또는 호랑이나 표범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데도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업신여기면서 가혹하게 부려먹는데 어째서 그러한가?

(나)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럿이 함께 즐거워하고 늘 보아 오던 것에 익숙하여, 그냥 순순하게 법을 받들면서 윗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항민(恒民)이다. 이러한 항민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모질게 착취당하여 살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부서지면서도 집안의 수입과 땅에서 산출되는 것을 다 바쳐서 한없는 요구에 이바지하느라, 혀를 차고 탄식하면서 윗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원민(怨民)이다. 이러한 원민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자취를 꾸쭈장 속에 숨기고 몰래 탄 마음을 품고서, 세상을 훑어보다가 혹시 그 때에 어떤 큰일이라도 일어나면 자기의 소원을 실행해 보려는 사람들은 호민(豪民)이다. 이 호민은 몹시 두려워해야 할 존재이다. 호민이 나라의 ⑦허술한 틈을 엿보고 일의 형편을 이용할 만한 때를 노리다가 팔을 떨치며 발두령 위에서 한번 소리를 지르게 되면, 원민은 소리만 듣고도 모여들어 모의하지 않고서도 소리를 지르고, 항민도 또한 제 살 길을 찾느라 호미, 고무래, 창을 가지고 쫓아가서 무도한 놈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 진나라가 망한 것은 진승과 오광 때문이었고, 한나라가 어

지러워진 것은 황건적 때문이었다. 당나라가 쇠퇴하자 왕선지와 황소가 그 틈을 타고 일어났는데, 마침내 백성과 나라를 망하게 한 뒤에야 그쳤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백성들에게 모질게 굴면서 저만 잘 살려고 한 죄의 대가이며, 호민들이 그러한 틈을 잘 이용한 것이다.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였지 한 사람이 위에서 방자하게 눈을 부릅뜨고서 계곡같이 커다란 욕심을 부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⑧진나라, 한나라 이후의 화란(禍亂)은 당연한 결과였지, 불행했던 것은 아니다.

(라) 지금 조선은 중국과는 다르다. 땅이 비좁고 험하여 사람도 적고, 백성 또한 나약하고 게으르며 잘아서, 뛰어난 절개나 넓고 큰 기상이 없다. 그런 까닭에 평상시에 위대한 인물이나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세상에 쓰여진 일도 없었지만, 난리를 당해도 또한 호민이나 사나운 병졸들이 반란을 일으켜 앞장서서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었던 적도 없었으니 그 또한 다행이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고려 때와는 같지 않다. 고려 때에는 백성들에게 조세를 부과함에 한계가 있었고, ⑨산림(山林)과 천택(川澤)에서 나오는 이익도 백성들과 함께했었다. 장사할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 주고,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다. 또 수입을 잘 헤아려 지출을 하였기 때문에 나라에 ⑩여분의 저축이 있어 갑작스럽게 커다란 병화나 상사(喪事)가 있어도 조세를 추가로 징수하지는 않았다.

(마) 우리 조정은 그렇지 아니하여 구구한 백성이면서도 신을 섬기고 윗사람을 받드는 범절은 중국과 대등하게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내는 조세가 다섯 푼이라면 조정에 돌아오는 이익은 겨우 한 푼이고 그 나머지는 간사한 자들에게 어지럽게 흩어져 버린다. 또 관청에서는 여분의 저축이 없어 일만 있으면 한 해에도 두 번씩이나 조세를 부과하는데, 지방의 수령들은 그것을 빙자하여 키질하듯 ⑪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 또한 끝이 없다. 그런 까닭에 백성들의 시름과 원망은 고려 말보다 더 심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윗사람들이 태평스레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리나라에는 호민이 없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견훤이나 궁예 같은 자가 나와서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근심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가서 따르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증하겠는가? 기주·양주에서와 같은 천지를 뒤엎는 변란은 ⑫발을 구부리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만한 형세를 명확하게 알아서 시위와 바퀴를 고친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허균, 「호민론(豪民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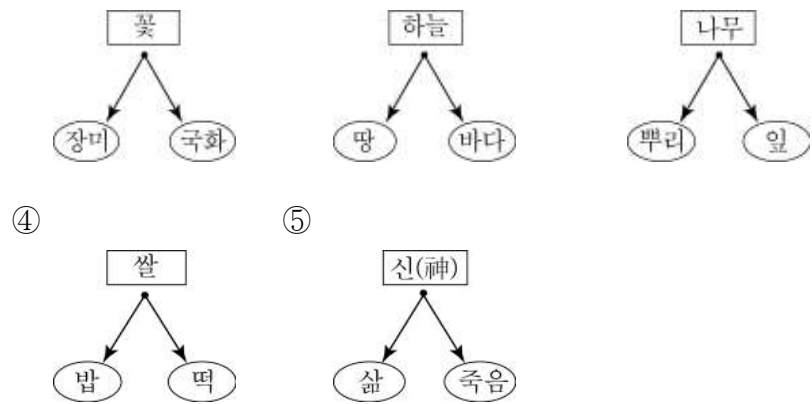
40.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백성에 대한 위정자들의 잘못된 태도 경계
- ② (나) : 현실 대응 방식을 기준으로 한 백성의 분류
- ③ (다) : 호민의 본분 망각으로 인한 혼란의 사례
- ④ (라) : 조선의 현실과 그 문제점
- ⑤ (마) : 위정자들의 태도와 의식 전환 촉구

41. <보기>는 위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기준 \ 유형	항민(恒民)	원민(怨民)	호민(豪民)
㉠	없다	있다	있다
㉡	없다	없다	있다



47. ㉠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졸작인 소설을 걸작의 영화로 탈바꿈시킴
- ② 원작 소설에 힘입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함
- ③ 독서 세대가 사라지고 영상 세대가 주축을 이룸
- ④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침체된 소설 창작을 부흥시킴
- ⑤ 소설가들의 창작 도구가 펜에서 컴퓨터 자판으로 바뀜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러구러 겨울을 당하니 풍설을 무릅쓰고 밤마다 최씨에게 아
니 갈 날이 없더라.
하루는 최공 집 종들이 뜰을 쓸며 이르되,
“동산 담으로 쫓아 눈 위에 신 자취 있어 낭자 침방(寢房)까지
있다.”
하거늘, 비복(婢僕) 등이 가만히 일러 전파하니, 최공의 장자 한
림이 이 말을 얻어 듣고 부마(駙馬)인 줄 알고 날마다 엿보더니
하루는 달빛이 몽롱하되 싸라기눈이 뿌리는 중 누역 없는 사람
이 담을 넘어 오거늘, 비복을 분부하여 도적을 잡으라 외치니,
부마가 웃으며 가로되,
“내 부마로다.”
하니 그중에 늙은 종이 귀먹어 못 들은 체하고 이르되,
“불렀거든 왔노란 말 더 흥악하다. 그 놈 못 나가게 동여라.”
하니, 부마가 어이없고 하릴없어 또 이르되,
“네 상전을 이리하고 어찌할까.”
또 가로되,
“아무려면 쌍놈이지 양반일까.”
부마가 웃으며 가로되,
“응당 양형이 시킴이로다.”
그놈이 또 이르되,
“아무려면 너 아니 갈까.”
다 못 듣는 체하고 매니, 부마가 웃고 매여 오니, 한림과 진사
가 앉아 분부하되,
“뜰에 동여매어 두고 너희 모두 지켜라. 내일 포청으로 보내리라.”
부마가 웃어 가로되,
“형이 나를 찬 데 동여매고 종들에게 옥을 이리 받게 하니 타
일에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려뇨.”
한림이 웃고 이르되,

(㉠) “도적이 범람하여 날더러 옥을 하니 큰 매로 엄
히 쳐라.”

모든 비복이 돌아서며 일시에 웃으니 웃음소리가 안에 들리는
지라. 최공이 그 연고를 물으시니 진사가 즉시 들어가서 말을 자
세히 고하니, 최공이 웃고 나와 친히 뜰에 내려 맨 것을 끄르고,
손수 이끌어 내실에 들어가 부인과 한가지로 앉아 물어 가로되,

“네 언제 이르렀뇨.”

부마 가로되,

“장인이 종시 허(許)치 아니하시니, 아내 그리워 견디지 못
하와 팔월부터 월장할 계교를 내어, 날마다 다녀 스스로
금치 못하다가 오늘 이 옥을 보오니 장인의 고집한 탓이로
다.”

(가)

공이 애련하여 등을 쓰다듬어 가로되,

“네 어찌 그리 미혹(迷惑)한가. 용주를 중대하여 자녀를 낳
고 살며 용주를 개유(開諭)*하면, 네 부친과 내가 주상(主
上)께 이런 절박한 사연을 고할 것인 즉, 주상이 인군(仁
君)이시라 허(許)하시리니, 그 때 빛나게 해로하기는 생각
지 아니하고, 갈수록 용주를 박대하며 귀인의 험담을 이르
고 복성군을 미워하며, 밤을 타 도망하여 날마다 내 집에
오니, 용주가 알면 화가 적지 아니하리니, 끝을 어이할꼬.”

[중간 줄거리]

경빈 박씨의 딸인 용주는 드디어 지경과 최씨의 밀회 사
실을 알게 되고 노여워한다. 이에 최씨의 아버지와 지경의
아버지는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지경과 최씨를 갈라 놓
으려 한다. 최씨의 아버지는 최씨에게 지경이 위험한 상황
에 놓여 있음을 알리고 최씨가 죽었다며 거짓 장례를 치른다.

세월은 유수(流水)같이 흘러 최씨 기일(忌日)이 돌아오매, 심
사가 더욱 비감함을 이기지 못하여, 조카 등을 데리고 글도 가르
치며, 입번(入番)**하는 날은 대군(大君)에게도 글을 가르치니, 충
명한 대군은 공경하고 사랑하시더라.

박씨는 지경을 미워하여 바로 보지 아니하니, 지경이 또한 바
로 보는 제 없더라.

이러구러 최씨 삼년상이 지나니, 부마가 설움을 이기지 못하여
최씨의 침소 밖에 이르러 배회하며 혼잣말로 이르되,

㉠“중적은 의구하되 사람이 없으니 이 설움을 어찌 견디리요.”

두루 생각하니 심회 비감함을 그치지 못하여 눈물이 한삼을
적시는지라. 용주는 갈수록 싫고 최씨는 오랏수록 잊을 길 없으
니, 20세 남자가 일생을 홀아비로 어이 견디리요.

자연 신세를 비탄하니, 최좌랑의 아들 선중이 나이 10세라. 따
라다니다가 이 거동을 보고 물어 가로되,

“숙부는 어찌 이토록 우시나이까.”

부마가 답하여 가로되,

“네 고모를 생각하고 우노라.”

선중이 가로되,

“고운 부채와 필묵을 주면 고모 있는 곳을 아니 이르리이까.”

부마가 가로되,

“죽은 사람 간 곳을 네 어이 아는가.”

선중이 가로되,

“조부께서 숙부가 매양 고모를 본다 하고 감추었나이다.”

부마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종을 보내어 색부채와 필묵을 갖
다가 주고 달래어 물으니, 선중이 가로되,

“나를 따라오소서.”
뒤를 따라가니, 동산 너머 두 집 지나 큰 집이 있어 대문을 잠
갔거늘, 동쪽 협문으로 들어가니 최씨 바야흐로 시비를 시켜 보
거늘, 부마가 바로 들어가 부인을 붙들고 가로되,
“이 어인 일고. 당명황(唐明皇)의 봉래산(蓬萊山) 꿈인가, 초양
왕(楚襄王)의 무산(巫山) 구름인가.”
최씨 역시 눈물이 샘솟듯 하니, 모든 시비 이 거동을 보고 슬
퍼 아니하는 이 없더라.

* 개유(開諭) : 알아듣도록 깨우쳐 타이름
** 입번(入番) : 궁에서 숙직하는 일
- 작자 미상, 「윤지경전」 -

4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요약적 진술로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는 전지적 위치에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과거를 회상하는 액자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④ 사건의 서술 주체에 변화를 주어 극적 반전을 꾀하고 있다.
 - ⑤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상징적 사물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주제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49. 위 글을 회곡으로 각색할 때,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침통하게
 - ② 머뭇거리며
 - ③ 애절한 눈빛으로
 - ④ 일부러 호통을 치며
 - ⑤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떨며

50. (가)의 대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위는 항의하고 장인은 체념하고 있다.
 - ② 사위는 투정을 부리고 있고 장인은 달래고 있다.
 - ③ 사위는 적대감을 드러내고 장인은 노여워하고 있다.
 - ④ 사위는 동정을 구하고 장인은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 ⑤ 사위는 잘못을 뉘우치고 장인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고 있다.

51. ㉡의 상황에서 주인공이 불렀음직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空山(공산)에 우는 접동 너는 어이 우짖난다
너도 날과 같이 무음 이별하였나나
아모리 피나게 운들 대답이나 하더냐
- ② 靑山(청산)은 옛데흐야 萬古(만고)에 프르르며
流水(유수)는 옛데흐야 晝夜(주야)에 굶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만고상청) 호리라
- ③ 대초 볼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뜻드르며
벼 뵈 윈 그르헤 게논 어니 느리논고
술 닉자 체 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④ 靑山(청산)도 절로절로 綠水(녹수)도 절로절로
山(산) 절로 水(수) 절로 山水間(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즈란 몸이 늡기도 절로절로
- ⑤ 靑山裏(청산리) 碧溪水(벽계수) | 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一到滄海(일도 창해)흐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明月(명월)이 滿空山(만공산)흐니 수여 간들 엇더리

[52 ~ 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제 법칙은 기존의 경제 법칙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은 산업사회와는 다른 기업 전략, 산업 구조, 산업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고유의 경제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우선 디지털 경제를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자. 물리적 재화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증대될수록 한계비용*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10개의 생산 라인을 갖춘 한 공장에서 100명의 노동자가 하루 8시간씩 제품을 조립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갑자기 주문량이 두 배로 늘어났다. 주어진 기간에 당장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거나, 노동의 투입량을 두 배로 늘려 생산 규모를 확대시켜야 한다. 즉, 생산량이 증대될수록 한계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재화**는 물리적 재화와 달리, 초기의 고정투자 비용은 크지만 추가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은 감소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와 운용 소프트웨어나 ‘흔글’과 같은 운용 프로그램은 초기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연구 비용과 테스트 비용이 든다. 그러나 이들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복사 비용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CD로 된 백과사전이나 음반 등도 초기 제작 비용은 대단히 크지만, 그것을 복제하는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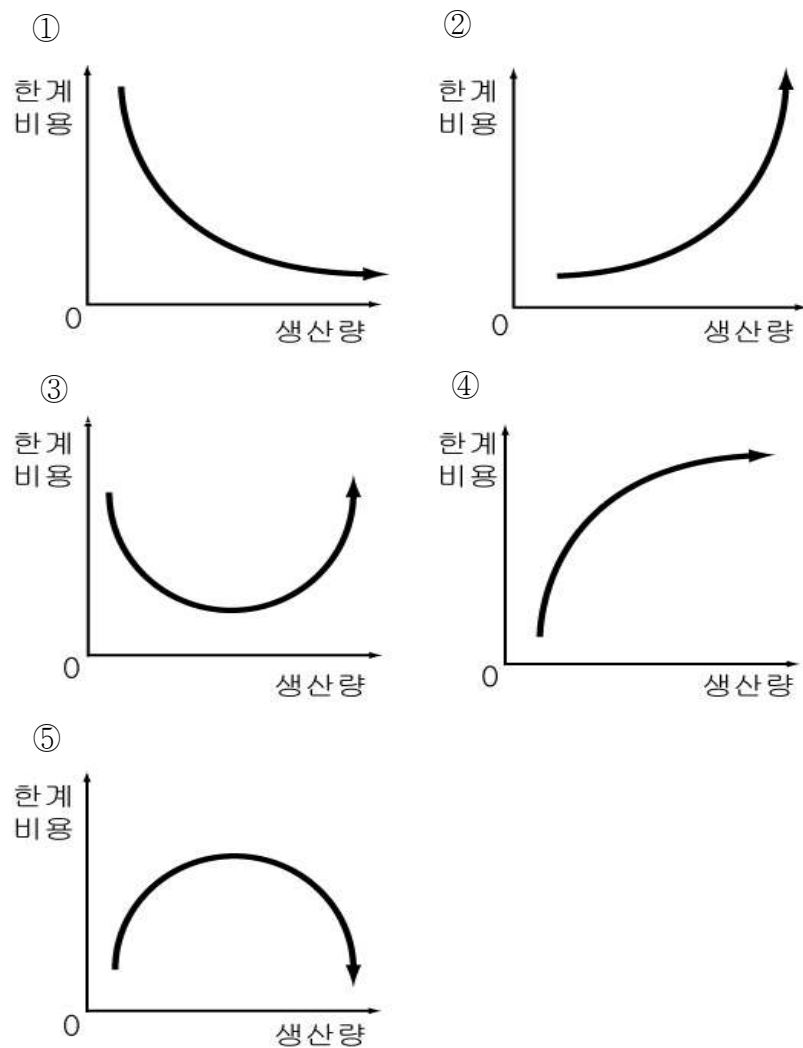
다음으로 수요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살펴보자. 전통적인 산업 경제에서는 가치가 희소성에 달려 있다. 다이아몬드나 금 등은 그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만 풍부해지면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희소성이 아니라 풍부함이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한다. 네트워크 효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수요자의

숫자가 커질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간의 접속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 개인 수요자가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써 얻는 이익 또는 수요자 간의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특징으로 무상 버전의 논리가 있다. 만일 냉장고 생산자가 자사 제품의 무료 샘플을 나눠주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곧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재화의 생산자는 무상으로 제품을 곧잘 나눠준다. 컴퓨터를 구입하면 무료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많은 소프트웨어 ‘데모’와 ‘프리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상품에서 무상 버전이 흔한 것은, 첫째, 디지털 상품은 한계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디지털 재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 비용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디지털 상품은 ‘경험재’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자신이 실제로 이를 사용해 보기 전에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 무상 버전은 고객들에게 디지털 제품을 시험해 보도록 하는 쉽고도 매력적인 방법이다. 특히, 많은 디지털 상품은 네트워크 효과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까닭에 제품을 사용하는 수가 어느 수준에 이를 때까지 무상 버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계비용 : 추가 생산량의 단위당 원가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희소성이 가치를 증가시킨다.
- ② 물리적 재화는 생산량이 증대될수록 한계비용이 늘어난다.
- ③ 물리적 재화는 수량이 적을수록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
- ④ 디지털 재화의 판매는 소비자의 사용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⑤ 디지털 재화의 경우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다.

53. 디지털 재화의 비용 구조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54. ‘온라인 게임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에서 경영 전략 회의를 하였다. 위 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1점]

- ① 정민 : 기존의 네트워크 가입자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수요가 확대될 것입니다.
- ② 재민 : 게임 프로그램 제작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므로 많은 사업 자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③ 정현 : 고객의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버전을 무료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④ 지윤 : 게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게임 대회를 열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 ⑤ 주원 :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을 늘려야 하니 나중에는 초기 투자 비용보다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55.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책 : 책은 소장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인

- 생의 자양분이 되었을 때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독서량이 풍부할수록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
- ② **팩스** : 팩스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팩스 사용자가 얻는 이익이 늘어나 그 가치가 높아진다.
- ③ **골동품** : 골동품은 오래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할수록 가치가 있다. 또 특이한 형태라면 그 가치가 더욱 오른다.
- ④ **우라늄** : 우라늄은 소량으로도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첨단 과학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임에 틀림없다.
- ⑤ **디지털카메라** : 디지털카메라의 장점은 촬영 후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사진을 저장하여 편집하기 쉽다는 데 있다.

[56 ~ 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 문병을 와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의(壽衣)는 장만해 왔니?”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을 하니?”

“애 좀 봐,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애 좀 봐, 그것도 안해왔구나, 넌 하여튼 알아줘야 해.”

“뭘?”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야.”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니…….”

나는 내가 나이롱에다 순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先塋)이 있지 않니?”

“느이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애.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 잡고 돈도 뭉 달랠라.”

㉠일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목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 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 놓니? 그

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판판으로 또렷하고 생기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그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숙 에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 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줬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잇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벌판의 밭머리에 가 매장했다. 행려 병사자(行旅病死者)**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火葬場)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分斷)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바람과 먼지가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삼십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게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 악력(握力) : 손으로 꼭 쥐는 힘

** 행려 병사자(行旅病死者) :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다가 병이 들어 죽은 사람

— 박완서, 「엄마의 말뚝2」 —

5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극적 반전에 의해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② 주로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③ 평범한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비극이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는 객관적인 태도로 사건의 외부에서 관찰할 뿐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57. 위 글의 인물들이 상호 간에 보이는 태도와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점]

- ① 친구 ↔ 충고 / 나 ↔ 연민 / 어머니 ↔ 해명 / 부탁
- ② 친구 ↔ 묵인 / 나 ↔ 혐모 / 어머니 ↔ 분노 / 자애
- ③ 친구 ↔ 연민 / 나 ↔ 존경 / 어머니 ↔ 저항 / 동경
- ④ 친구 ↔ 이해 / 나 ↔ 원망 / 어머니 ↔ 체념 / 중용
- ⑤ 친구 ↔ 조언 / 나 ↔ 이해 / 어머니 ↔ 감사 / 동정

58. ㉠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1점]

- ① 일을 벌리고 잔다.
- ② 손등에 일을 맞추다.
- ③ 일이 하나가 늘었다.
- ④ 일으로는 당해 낼 수가 없다.
- ⑤ 한 일에 먹어치우기에는 너무 많다.

5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단으로 인한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
- ② 자식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사회적 사건이 개인적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다.
- ④ 분단이라는 비극과 대결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고 있다.
- ⑤ 살아남은 자식들과의 단절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

60. ㉠처럼 표현한 서술자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연민과 공포를 드러낸다.
- ② 화장 행위 자체에 대한 경멸과 조소를 드러낸다.
- ③ 묘지를 미리 장만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④ 가족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울분과 무력감을 드러낸다.
- 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야기된 비극에 대해 자책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
시오.